

## 탈북 방지 강연내용

### 1. 탈북자의 정착 지원금에 대해

안기부의 사주를 받은 탈북 브로커들이 탈북자가 한국에 입국하는 동안의 비용을 몇 푼 안 되는 정착금에서 빼앗는다. 결국, 괴뢰 당국이 탈북자에게 돈을 주는척하지만, 다시 빼앗는 것이다.

### 2. 정착교육과 직업훈련

'하나원'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탈북자 교육을 하지만, 실제 정착에 도움되는 교육이 없다. 교육을 핑계로 독방에 가두고 각종 심문을 진행하고 이곳의 교육으로 취업하는 사람이 없다.

※ 강연자는 동상 파괴 임무를 받고 재입북하다 체포된 '전영철'의 실례를 들며 하나원 조사과정에 뇌 손상까지 당했다고 설명했다.

### 3 각종 세금과 비싼 의료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다. 돈이 없으면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는다. 세금이나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재산이 몰수당한다.

### 4. 탈북자를 거지 취급한다

남조선 당국의 지시로 만들어진 탈북자를 돕는 단체가 탈북자를 대상으로 기간이 지난 식료품이나 중고 옷을 가져다준다.

### 5. 취업이 어렵고 위험한 일밖에 없다

탈북자를 외국인 취급하고 무시하면서 일자리를 주지 않아 공사현장이나 고열, 유해노동 같은 위험한 일밖에 할 수 없다. 또 일하다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려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 이 해설 부분에서 강연 집행자가 참가자 중 몇 명을 불러 세워놓고 '한국의 상황이 이렇게 비참한데 당신이 간다면 뭘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했다고 한다.

## 6. 남조선 간부의 월급 200 만 원, 살기 어려워

남조선 간부 월급이 보통 200 만 원. 그중 세금으로 빼앗기고 실제 남는 돈은 100 만 원 안 된다. 이 돈으로 자식 공부시켜야 하고 식품 가격도 비싸 3인 가족이 먹고살기도 힘들다.

※ 이 해설 부분에서 강연자는 '탈북자가 하루 9~10 시간 일해도 받는 돈이 120 만 원이다. 세금을 내고 나면 밥 먹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 7. 한국의 탈북자들이 북한 가족에 보내는 돈에 대해서는

'탈북한 사람의 돈이 아니라 남조선 당국이 우리 체도를 압살하기 위해 비싼 이자를 받아 빌려준 돈이고 가족에게 잘사는 것처럼 보여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데 이것은 탈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